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실시 “다함께 밝게 보는 세상 만들어요”

진안군, 수박·사과·건고추·인삼 총 4개 품목 가격안정 지원

진안군은 기후변화와 가격 변동성의 증가 등으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진안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주며 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군에서 지원하는 대상품목은 수박, 사과, 건고추, 인삼으로 총 4개 품목이다. 본격적인 사업신청 및 출하계약은 5월 1일~5월 30일까지 신청이 예정된 수박을 시작으로 ▲건고추와 인삼 6월 1일~6월 30일 ▲사과 7월 1일~7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수박, 사과, 건고추의 경우

소재지 농협 및 각 지점에서 가능하며 인삼은 인삼농협을 통해 가능하다. 시장가격은 계통조직을 통해 당해연도 성출하기에 출하된 농산물의 평균 농가수취가격으로 책정하며, 기준가격은 최근 5개년 자료 중 최저가격을 제외하고 전국평균 조수입이다. 최저가격은 그 기준가격에서 15%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지원은 품목당 1,000㎡에서 10,000㎡의 범위에서 동일 필지에 대해 1년 기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올해 기준 2021. 4. 1.이전부터)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진안군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며, 관내 통합마케팅전문조직(조공), 농협·전북인삼조합과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계약한 조직

에 계통출하를 실시한 농업인이다. 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계통조직들과 협의를 마쳤으며 읍·면을 비롯해 각 계통 조직에 정확한 업무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사업신청 시 재배면적을 달리 해 가구별 이종신청하거나, 타인의 경작지를 대신 신청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3년간 신청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신청 시 주민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상 품목에 대해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속도를 바란다”며 “사업의 첫 시행인 만큼 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저소득 가정 어린이 대상 눈 수술비 연중 지원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눈 수술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질환은 사시, 안검내반(결막에 생기는 질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이며 해당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 포함) 및 사전 검사비로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 대상 및 기준은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 어린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 절차는 무주군보건의료원에 개안수술지원 서류를 접수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지원이 결정된

후 희망병원에서 수술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신청 질환 관련 수술비(입원료 포함) 및 사전검사비와 수술 후 치료 목적의 안경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접수에서 지원까지는 약 2주 이상 소요되며 유선상담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다. 수술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각장애 예방하는 한편 저소득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박석영 주무관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눈수술 비용 지원으로 다함께 밝게 보는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보건의료원(320-8355)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공무원 대상 법률 특강 실시

무주군은 지난 28일, 29일 이틀간에 걸쳐 전문문화의 집 2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률 특강을 통해 각종 민원응대는 물론 일선 업무와 행정처분 시 적용되는 법령의 정확한 기본해석이 가능케 함으로써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일등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청 박동걸 법무 전문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헌법과 형법을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헌법 총칙편에서는 법외의 성립과 처벌, 적용범위,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미수범, 공범 등을 쉽게 설명했으며, 헌법 기본권 편을 통해 헌법의 기본질서와 총장,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참정권 등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공직자들에게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한방 가정방문사업 ‘호응’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욱)은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일 한방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방 가정방문사업은 건강관리가 어려운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관절염환자, 만성질환 위험군 어르신 등 한방가정방문 진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한의사와 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침 시술, 투약 등 포괄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방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뿐만 아니라 파스 등 통증완화 의료용품 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한방 가정방문사업은 교통 불편으로 진료 서비스 수혜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만성·노인성 질환 예방 관리와 노인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한방 진료, 우울·불면 등 정신건강 상태 검사 등 다른 사업을 연계 다각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코로나19 격리 구호세트·생활지원금 지원 종료 안내

장수군, 법정감염병 1급→2급 하향 조정 따라

장수군은 4월 25일부터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4월 30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 구호세트 지원이, 5월 23일부터는 생활지원금 지원이 각각 종료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군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했던 격리 구호세트 지원을 4월 30일부로 종료하며,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비지원 역시 5월 23일 이후로 종료한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

리된 대상자들에게 라면, 물, 식료품,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세트를 만들어 2020년부터 총 1,776가구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의 경우 2022년 3월 16일 격리자부터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오는 5월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생활지원비도 중단될 예정이다. 5월 23일 이전 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

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주성덕 주민복지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해주시는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 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하루 빨리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지난 29일 사회적 경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안군 사회적경제기업 간담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29일 사회적 경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마을기업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 및 단체 대표 24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한명재), 진안군청 농촌활력과가 참석하여 진안군의 사회적 경제 방향성 설정을 위하여 머리를 맞췄다. 진안군에는 사회적 기업 6개소(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마을기업 3개소, 자활기업 4개소, 협동조합 35개소 등 45개소(중복제외)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군은 ▲사회적경제 조례 마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공유센터 개소, ▲공유플랫폼 ‘썬썬’ 개소, ▲사회적경제기업 간담회 개최,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사회적경제 홍보책자 제작 등 2021년까지의 추진상

황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 2022년 동안 진안군 추진 사업 및 도 판로지원사업(전북 생생장터 운영, 우체국 소포물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 등)에 대해 안내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대표 한명재)는 사회적경제역량강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을 위하여 교육, 자금, 판로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및 단체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남수 농촌활력과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유기농 감자 병해충 종합관리 실증 재배

진안군은 유기농 감자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와 협업체 실증재배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실증을 통해 진안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하는 클로렐라와 복합 미생물제를 처리할 때 감자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더듬이병, 역병, 무름병 등의 발생 정도와 수량성 조사를 하게 된다. 실증에 들어가는 품목은 새봉, 수미, 조원 등 12개로 친환경 미생물제 처리에 따른 품질을 개선하고 수량성이 높은 품종을 선발하고자 한다.



실증재배에 쓰이는 클로렐라는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서 분양한 종균을 분양받아 자가 배양해 품질관리를 추진한다.

복합미생물제(유산균, 효모, 고초균, 광합성균)와 품종별, 처리구별 구획하여 1주 간격으로 처리하여 실증에 들어가게 된다. 오는 6월 말 수확 후 처리구별 수량성, 병해 정도 등을 조사하고 친환경 미생물제처리 감자 재배 기술 보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기농 감자 병해충 종합관리 실증재배를 통해 친환경 감자 재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진안 여건에 맞는 감자품종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실증재배를 통해 적극적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